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정재현



구조가 그 답이다. 규모를 떠나 기업활동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사람·기술력·돈'이다. 이 세 가지 자양분이 서울과 대기업에 집중돼 있으니 어느 기업, 기업인이 지방을 쳐다나 보겠는가.

문제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지방의 실상을 보면서도 팔짱만 끼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힘을 지속시키고 확장시키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MB정부에서는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기업 출자총액제 폐지가 대표적 사례다. 이 결과로 MB정부와 여당은 '양극화의 덫'에 걸려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과제인데도 말이다. 정치권이 총선 승리와 집권에만 함몰해 정작 문제의 본질인 지방의 실상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지방은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취업하려 해도 변변한 기업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비밀 언덕'조차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지방은 '근육위축증' 환자처럼 마냥 쪼그라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울 선거 선택 잦아 돼야

요즘 각 정당에 쏟아내고 있는 장밋빛 공약도 실상은 선거용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지방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서 어떻게 균형발전, 서민 위주, 동반성장의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 전 국토의 88%가 지방이고,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지방에 살고 있는 거를 두고 있지 않은가.

을 총선과 대선에서는 '지방경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지방에 더 관심을 갖는지, 지방을 회생시킬 능력이 있는지 냉철히 판단해 '심판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 또다시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패거리 정치나 지역·학연·혈연에 얽매어진 지방은 '지방인' 신세를 면할 수 없다. 특히 광주·전남은 더욱 그렇다.

〈논설실장〉 jhjung@kwangju.co.kr

실종된 '지방경제' 어떻게 찾나

우 명백한 이어 가고 있다. 지방기업의 자생력은 상실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들이 온갖 유인책을 내놓으며 기업유치에 목을 매고 있지만 별무소득이다. 어렵사리 유치한 기업들도 얼마 가지 않아 문을 닫거나 수도권으로 U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방은 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척박한 토양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지방경제가 활력을 잃고 겨우 숨만 갈딱거리려는 이유다.

기업들이 왜 지방을 외면하는가. 무엇 때문이냐. 기업들이 지방에 오면 고사(枯死)하는가.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스스로 자생자박한 셈이다. 그렇지만 피해자인 서민, 중소기업, 지방경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선거의 해를 맞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기성 정치권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 세력이 꿈틀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양극화 해소와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의 허파를 부르짖고 있다. 젊은층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이에 화답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 속에 지방경제의 몰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의 재분배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경제의 회생'이 절실한

'지방인'으로 전락한 지방

하지만, 이 회사의 현주소는 참담하다. 금융권의 부실 리스트에 올랐고, 공장설비는 가압류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단전 조치까지 됐다. 공장 문을 연지 1년여 만에 가동을 중단했다. 솔렌시스 위기의 근본 원인은 자금난이다. 투자자들이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투자협상이 깨진 게 다반사였다고 한다. 결국 '지방'이라는 골때리에 얽매어 날개를 펴지도 못한 채 주저앉을 상

기 고

대학 진학지도 학생 중심으로 바뀌어야



김왕복

대학 졸업과 입학 시즌이다. 원하는 직장을 잡은 졸업생들의 마음은 새털처럼 가볍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운 것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 침체를 겪은 올해는 대졸자 취업난이 어느 때보다도 심했다. 4년제 대졸자의 과반이 백수이고 취업자의 40%가 연봉 1800만 원 이하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4년제 대학 선택 결과의 현주소다.

대학진로는 기본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결정한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학생과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들은 선생님과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는 학생들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부 잘하고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4년제 유명대학 유명학과에 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무조건 4년제 대

학이 전문대학보다 낫다는 식으로 진학지도를 하면 다음 사례처럼 학생들에게 큰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

#1. H씨의 장남은 4년제 사립대 유수학과를 차남은 C전문대학 화공과를 졸업하였다. 장남은 선생님의 진학지도와 본인의 의사에 따라 4년제를 선택하고 차남은 아버지의 권유로 학비가 싸고 취업 전망이 좋은 전문대학을 선택하였다. 졸업 후 현 상황은 장남은 자영업 준비 중이고 차남은 대기업에 생산직으로 취직하여 자가용을 몰며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

#2. 국립대 사대 과학교육과 재학생인 J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저출산 고통화 사회 진입으로 학령 아들이 줄어들어 과목 교사임용 시험이 언제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내신 성적이 우수해 사대에 진학했으나 교사임용 시험에 합격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

첫째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열이 문제다. 내가 못 이룬 것을 자식들은 꼭 이루어야 한다는 한(恨) 풀기식 교육과 자식에 대한 객관적 평가 대신 무조건 4년제

대학을 선호한다. 둘째 명문대와 4년제 대진학 숫자 기준으로 고등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 학생들의 적성과 장래보다는 눈앞의 4년제 대진학 숫자 늘리기 위주의 진로지도는 학생들에게 시형학오의 아픔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내가 근무하는 전문대학에는 매년 4년제 대학에 입학했거나 졸업한 학생들 약 100여 명이 취업이 잘 되는 학과 중심으로 재입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 등록 신입생들 중 상당수가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등록금을 환불해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전체적으로 대학진학 및 취업과 관련된 변화가 여러 방면에서 감지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러한 변화에 순응하여 의사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졸자들을 '선 취업 후 진학'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대학진학률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2003년 83.8%를 정점으로 하여 2011학년도에는 72.5%까지 떨어졌다. 둘째 전문대학교에 대한 입학지원자 수가 줄어들어 4년제 대학교보다 앞서고 있고 취업률도 전문대학이 60.7%로 4

년제 대학 54.5%보다 훨씬 높다. 셋째 대기업은 간부직과 생산직으로 구분하여 뽑는데 4년제 출신은 생산직에 응시할 수 없다.

대기업 취업은 모두의 로망이다. 그러나 올해 30대 대기업 공채 인원은 12만 명인데 그 대졸자는 8만3000명 정도다. 항상 표준을 지향하는 삼성은 4년제 9000명, 전문대 3000명, 등 총 2만6000명을 모집한다. 삼성의 모집 구성비를 전체에 적용할 때 4년제 출신 간부 사원 모집 인원은 6만 여명에 불과하다. 평균적으로 고졸자를 60만 명으로 봤을 때 10% 정도만이 대기업 간부 사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기업 간부사원이 50대 이후까지 생존할 확률은 약 20% 정도이고 상무 이상 임원까지 승진할 확률은 약 0.6% 정도밖에 안 된다. 반면에 전문대생이 취업하는 대기업 생산직은 간부 승진에는 제약이 있으나 정년인 58세 정도로 보장되어 있고 월급 수준도 간부 사원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대학 진로지도는 정부 정책과 취업 환경 변화 등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학생들이 자기 적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학교와 학과 중심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발상 전환을 기대해 본다.

〈조선이공대학교 총장·행정학박사〉

시 설

뿌리째 흔들리는 전남교육 회생 방안 없다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가 격감하면서 전남 공교육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학생 수가 없어 이미 초·중·고등학교들이 통폐합됐지만, 그 여파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고사 위기의 전남 농어촌 교육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전남도교육청이 집계한 2012학년도 초·중·고교 학급 및 학생 수는 총 837개교 25만1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학교 1개교, 학생 1만500여 명(4%)이나 줄었다. 더 큰 문제는 학생 수가 2008년(-5258명), 2009년(-7260명), 2010년(-9232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만 해도 2119개교였던 학교가 올해 1391곳으로 무려 700개교나 문을 닫았다.

초등학교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1만5500여 명에서 올해 10만7300여 명으로 무려 8200여 명의 학생이 줄었다. 전남에서 '복식수업'(한 학급에서 2

개 학년을 교사 1명이 가르치는 형태)이 불가피한 학교가 무려 126개교에 달할 정도다. 사실상 수업이 파행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서는 지역 인재 유출-인구 감소-농어촌 붕괴의 악순환만 부를 뿐이다.

전남도내 학교이지만 늘고, 장성, 장흥, 함평 등은 대입성적이 좋아 타지에서 지원자가 몰리는 추세다. 지역에서도 경쟁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수학생을 뽑아가지 않고 오히려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남교육을 살리기 위해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는 점도 이 때문이다. 교육청은 학교의 적절한 통·폐합을 통해 교육기반을 되살려야 한다. 지자체도 장학금 조성,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 지역교육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정부도 특단의 대책으로 농어촌 교육과 지방을 함께 살려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 내 '일탈행위' 엄히 다스려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포함돼 보상을 받은 일부 원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단을 꾸려 건설업체 및 납품업체 등에 공사 입찰 우선권을 주장하며 커미션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를 주민은 혁신도시 조성 주체인 전남도와 나주시의 승인 없이 사업단을 만든 데다 갖가지 잡음도 낳고 있어 지역 이미지 실추도 우려된다.

혁신도시기획단에 의하면 지난 2008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주민 400여 명이 생계유지 조장을 결성한 뒤 기획단에서 일일한 무연고 분포 및 지장물 철거 등 13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지난해까지 모두 마무리했다고 한다. 사실상 조합으로서의 존재와 역할이 끝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 업체들에게 공사 입찰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사업 참여 조건으로 계약금의 3~4%를 커미션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혁신도시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합은 전남도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에서는 이 사업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사업체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일부 업체들이 사업단의 말을 믿고 20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단의 이런 일탈행위가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지역의 대역사 현장에서 구시대적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혁신도시 건설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참여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공사 차질은 물론 지역 이미지도 실추될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기획단과 나주시는 건설업체와 납품업체 등에 사업단의 실체를 주지시켜야 할 것이며, 미리 여부와 파악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 경찰도 사업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히 다스려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중국 한나라 경제(景帝) 당시 어사대 부를 지냈던 직불의(直不韋)라는 사람의 이야기다. 그가 낭관(郎官)으로 근무할 때 같은 방에 거거하던 동료가 휴가를 떠나면서 다른 사람의 금을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가져갔다.

금을 잃어버린 낭관이 자신을 의심하자 직불의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금을 사서 보상해주었다. 얼마 뒤 휴가에서 돌아 온 사람이 금을 돌려주자 직불의를 의심하며 누명을 씌웠던 낭관은 크게 부끄러워했다.

조선 초 당대의 문장가였던 강희맹(姜希孟)은 이 사건에 대해 "직불의가 변명하지 않은 까닭은 '옳고 그름은 진실로 자

랐는가. 누명을 썼다면 누구라도 방에 호소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했을 것이다. '직불의'라는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해진 이유는 그가 현명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돌아간다면, 직불의는 금을 잘못 가져간 건 동료가 돌아오면 오히려 풀릴 것을 알고 있었고, 덤으로 평판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얻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의 방역비리 의혹으로 곤경에 처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공개 신체검사를 요구하고 있고, 감사원에 서도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다" "언론이 이해가 간다"며 감정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더 이상 해명을 미룬다면 자신을 서울시장이자 새로운 정치지도자로 만들어 준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 직불의의 진가는 초기 대처를 잘했다는 점에 있다. 박 시장이 해명해 나서서 무고함을 밝혀지더라도 직불의처럼 평판까지 얻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오늘날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얻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 옛날이라고 달

누명과 평판



은편칼럼



김창균

20세기 이후 우리 사회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발전은 궁극적으로 인재부족을 꿈꾸는 우리의 갈망과 노력의 성과였다. 정형화된 교육 방법으로 전수한 표준화된 지식은 비숙련공을 숙련된 인재로 양성하는 데 기여하였고, 이는 산업 발달의 기틀이 되었다. 하지만 자동화보 인한 '고용 없는 성장'과 신자유주의 흐름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시형 박사는 "40대 은퇴, 100세 수명시대, 지금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공부-취업-은퇴'

미래를 위한 학교문화

라는 관습적 사이클 대신 '평생 공부하고 도전하는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중요할까.

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핀란드 교육철학은 사회구성주의를 지향한다.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지식은 어떤 목적이나 가치 없이 존재하며, 학습은 단순한 지식 수용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지식을 탐구하고 구성하는 주체적 활동이다. 진정한 교육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있다. 기성세대의 관념에 숨어있는 신본 사상, 차별, 경쟁의 도그마 속에서는 '대학 진학'과 '눈앞에 보이는 유망 직업' 외에 다른 목표가 설 자리는 없다.

좋은 성적이란 결과물이 아이들 자신보다 더 존중되는 학교 문화 속에서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기는 어렵다. 아이들의 내적 리듬을 발견하여 이를 미래의 힘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일방적 잣대로 재단

하여 결핍의 아픔을 가중할 뿐이다. 국제화 업적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수 면에서는 하위권을 면치 못한다는 점은 효율과 성적에 치중하는 기능주의적 교육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미 졸업장만으로 평생 먹고 사는 시대가 지났다. 'UN 미래보고서'에 의하면 현존하는 직업의 80%가 10년 내에 사라지거나 진화할 것이라고 한다. 10~15년 후에는 한 사람이 서너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29~40가지의 직업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도 '자신의 호기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평생을 일과 여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무엇을 찾아 가는 사람, 전 지구적 공동체에서 남을 배려하고 더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관리 소홀 대형사고 발생 우려

운전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보면 타이어의 공기압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다니는 차들을 자주 본다.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을 경우 자동차의 안전에는 중대한 위협을 준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험하지는 잘 모른다.

타이어는 차체의 중량에 의해 눌리면서

바닥면이 약간 들어가 타이어의 모양이 변형이 생긴다. 바퀴가 구르면서 바닥에 닿았던 부분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다시 바닥에 닿을 때 눌리며 변형이 생기는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게 된다.

타이어의 이런 정상·변형의 반복운동은 타이어의 공기가 적을 경우 변형된 타이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방해하게 된다. 공기

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타이어 공기압을 낮은 채로 고속도로 주행시 타이어가 원형대로 복구되지 않고 과도하게 찌그러지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상태로 운행을 계속할 경우 타이어 온도도 급상승해 순간적으로 타이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다.

몇 달 전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은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경우 심각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실험결과를 방영했다. 이런 타이어 파손이 특히 심각한 이

유는 대부분의 경우 차량전복이나 뒤따르던 차와의 연쇄추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타이어 파손을 예방하려면 정상적인 타이어도 공기압이 누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1~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공기압을 체크해야 하는데, 타이어 옆면에 적힌 적정압보다 10% 정도 높여주는 것이 고속주행에 적당하다.

운전자들이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것을 간과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큰 가족을 위협에 빠뜨리게 되는 항상 신경 쓰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은진·광주시 서구 덕흥동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 金鐘元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 |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가)11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 | |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내선 | 222-4918 | 문화생활부 | 2200-661 |
| 편집부 | 2200-649 | 여론매부 | 2200-621 |
| 정경부 | 2200-612 | 체육팀 | 2200-697 |
| 대표FAX | 222-4918 | 사진부 | 2200-693 |
| 사회부 | 2200-616 | 조사부 | 2200-571 |
| 대표FAX | 222-4267 | 전산팀 | 2200-685 |
| 경영지원국 | 2200-515 | 문화홍보국 | 2200-541 |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 광고이케팅국 | 227-9600 |
| 독자서비스국 | 2200-551 | (F A X 227-9500) | (F A X 02-773-9331) |
| 다자민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기획사업국 | 2200-555 |
| (F A X 02-773-9335) | |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